

‘세계’를 읽는 방식:
세계문학론과 번역이론의 점점 읽어내기

박 선 주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1. 서론

1827년 괴테가 “세계문학(Weltliteratur)”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자유로운 이동과 교류를 지향하는 문학정신을 표방한 이후, 문학연구에 있어 국민문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더 큰 단위의 분석틀을 이론화하고자 하는 많은 비평적 시도가 있어왔다. ‘한국문학’ 혹은 ‘미국문학’ 등 제한적이고 지엽적인 국민문학의 틀로는 끊임없이 벽을 넘어 흘러넘치는 역동적이고 거침없는 문학 공간에 대한 요구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구화가 가속되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자유로운 문학연구의 틀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국가 경계의 권위와 역할은 급속한 전지구화, 냉전체제의 붕괴,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자본, 기술, 노동력, 문화는 국경을 뛰어넘어 빠르게 이동, 유포되

주 제 어: world literature, translation, Eurocentrism, universality, mobility, disconnectivity, failure

고 있으며, 지구적 차원의 교류와 소통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가지는 초국가적, 지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더 ‘넓게’ 보고 더 ‘크게’ 사고하는 것은 사회적 요구이며, 지구적 관점과 거시적 시각을 갖춘 새로운 문학연구의 패러다임을 탐색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새로운 문학연구의 틀, 즉 지구적 교류와 소통이라는 더 큰 맥락과 관계망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은 아직 많은 의문과 반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가/문화/언어의 경계를 넘어서는 종류의 문학연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치 않으며, 또 그런 성격의 연구가 과연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회의적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국가 간 경계를 넘는 교류와 접촉은 반드시 중립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을 띠는 것만은 아니며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정복’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은 그 이동에 부가되는 경비와 시간을 댈 수 있는 소수의 유한계급에 한해 가능하다는 사실도 문제이다. 데이빗 리(David Leiwei Li)는 “초국가성(transnationality)”이란 일부 부유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특권임을 지적하면서 계급, 성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불평등의 양상을 간파하는 초국가주의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기도 한다(612-3). ‘세계문학’이 가지는 또 다른 문제점은 ‘세계’라는 범주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향하는 정치적 아젠다 역시 모호하다는 점이다. 캐리 넬슨(Cary Nelson)같은 비평가는 지구화시대 ‘세계문학’은 정치적 지향을 잃어버려 결국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까지 한다. 국가주의시대에는 국가가 문학과 예술을 장려하였으나 국가가 쇠퇴하고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지구화 시대에는 아무도 문학연구를 지원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7). 대학 학제 속의 강좌로서의 ‘세계문학’ 역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다. 비교문학이 세계 각국의 문학텍스트를 원어로 읽고 연구하는 전문화된 대학원 수준의 학제라면 ‘세계문학’은 주로 미국대학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과정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데 교양과목이 갖는 한계와 특성상 제한된 시간 내에 몇 권의 유럽 위주의 고전을, 그것도 번역본으로 읽으면서 거시적 시각이니, 세계

니 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세계문학' 강좌의 리딩리스트도 비판의 대상이다. 주로 유럽 위주의 문학텍스트에 비유럽권 텍스트를 구색맞추기식으로 끼워넣은 '세계문학'의 정전은 결국 유럽중심적 시각을 교육하고 전파할 뿐이다. 스피박(Gayatri C. Spivak)은 현재 미국대학에서의 '세계문학' 교육은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가 교육현장에서 발현한 형태라고 보며 미국 스타일인 '세계문학'이 비서구지역으로 전파되는 현상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한다(Death of Discipline 39).

'세계문학'이 그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논란의 중심에 놓인 이유는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 관점의 확립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이다. '세계'라고 했을 때 그것은 '누구'의 세계인가? 그 '세계'를 정의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가? '국가' 혹은 '민족' 등의 편협하고 지엽적인 시각을 깨고, '세계' 라는 보다 포용적이며 자유로운 관점을 갖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여 획득한 지구적 시각이 또 하나의 편협하고 지엽적인 시각인 것은 아닌가?

이 논문은 '세계문학'이 서구중심적 시각에 의지하거나 흡수되지 않고 세계와 문학을 구상하는 방식을 번역이론과의 접점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세계문학과 번역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이다. 문학은 번역을 통해서만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이동할 수 있고 그 이동을 통해서만 세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번역은 언어, 문화, 국가를 가로질러 넘나드는 분주한 이동 속에 언어와 문학의 '기원', '고향', '본질' 등의 개념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도전받는 장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세계문학'을 이론화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공간이다. 번역과 세계문학이 맺고 있는 이처럼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계문학론에서 이들의 접점은 암시되는 정도일 뿐 이론적인 측면에서 둘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시도는 이제까지 없었다. 이 논문은 세계문학과 번역을 이론적 측면에서 함께 논의했을 때 더 생산적이고 유효한 서구탈피적 세계문학론을 펼칠 수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

2. '세계문학'과 서구적 '보편'

‘세계문학론’은 서구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분석대상인 문학작품도 주로 미국과 유럽 중심의 정전들이었으며, 따라서 ‘세계문학론’에는 태생적으로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문학론’의 선구자인 괴테는 19세기 초 기술의 발전으로 유럽의 국가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그는 문학작품의 교류와 접촉은 개별 국민문학의 성장에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 궁극적으로 문학 전체의 발전이 도모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궁극적으로 국민문학을 넘어서 ‘세계문학’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예언하였다(5).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는 괴테의 코스모폴리탄적 비전을 이어받아 국가, 문화, 언어를 초월하여 각국의 협력과 지지 속에서 수행되는 문학활동의 성격과 양상을 개념화하였다. 그는 세계문학은 “문명화된 국가들(civilized nations)”간의 “위대한 연합(great confederation)”으로, 이렇게 형성된 세계문학은 개별 국가의 문학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고 궁극적으로 각국의 국민문학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보았다(75-6). 막스와 엥겔스 역시 ‘공산당 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에서 괴테의 ‘세계문학’ 개념을 자신들의 정치적 아젠다에 맞추어 발전시킨다. 그들에 따르면 개별 국가에서 생산된 지적재산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고 편협한 자국이기주의가 없어지는 미래에, 인류가 보편적으로 생산하고 공유하는 ‘세계문학’의 출현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Pizer 220). 리처드 몰튼(Richard Molton)은 ‘세계문학’을 미국 대학의 교양교과목으로 설립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한 비평가로, ‘세계문학’이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언어로 쓰인 원본이 아니라 자국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번역과정에서 소실되는 것은 언어적 가치일 뿐 문학적 가치는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자국의 가치와 시각에 따라 ‘세계문학’ 교육의 원칙과 정전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6).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교류’, ‘문명’, ‘보편’, ‘가치’ 등의 용어들은 기본

적으로 유럽중심적인 개념으로, 그들에게 '세계'란 곧 '유럽'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괴테가 '세계문학'이 출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전제하는 문학작품의 빠른 이동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발달이란 당시 유럽대륙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었으며, 아놀드가 '세계문학'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삼는 '문명'이라는 단서는 바로 유럽만의 전통과 문화를 명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막스와 엥겔스는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실체가 혁명으로 쉽게 소멸될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세계 각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공동체의 특수성을 부정하는데 이는 유럽의 근대 국가를 인간 공동체의 보편적인 모델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을 '세계'와 동일시하면서 서구적 가치를 인류 보편의 가치로 상정하는 이러한 세계문학론들은, 사실상 국가 간 경계를 허물기는커녕 더욱 강화해나간다. 실제로 괴테, 아놀드, 몰튼 등이 주창한 '세계문학론' 안에서 개별 국가의 역할과 의미는 뚜렷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들의 세계문학론에 궁극적으로 국가주의의 아젠다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괴테의 경우 "인류 보편의 세계문학"에 있어 "영예로운 역할이 우리 독일민족을 위해 남겨져 있다"고 확신했으며(5), 국가 간 경쟁을 강조하면서 암암리에 '국가'를 세계문학 탄생의 중요한 동인으로서 제시되고 있다.¹⁾ 아놀드의 세계문학론에서 강조된 국가주의는 "쇼비니즘"(McInturff 227)의 성격을 띠 정도로 강하게 표출되어 있으며, 몰튼 역시 비평가의 국가주의적 시각을 세계문학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한다. 그는 개별 국민문학 간의 비교가 사실은 경쟁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국의 문학 수준을 최상으로 높여서 '세계문학'의 반열에 올리고 궁극적으로 문학비평의 준거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명백히 애국주의적인 아젠다를 드러낸다(6).

지금까지 살펴본 서구 비평가들의 세계문학론에서 서구중심주의와 국가

1) 많은 괴테 학자들이 괴테의 '세계문학'은 나폴레옹 전쟁 직후 독일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읽어야 하며 그런 문맥에서 보았을 때, '세계문학'의 코스모폴리턴적 이상주의는 독일국민의 애국심과 국가적 자부심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Pizer 216; Strich 31; Macinturff 225).

주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 차원에서 만나는 국민국가체제는 사실 19세기 유럽에서 생산된 특정한 패러다임이며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역사를 거쳐 전 세계에 유포된 체제라는 사실을 상기해보자면, 유럽중심주의와 국민국가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프랑스 비평가 부흐네티에(Ferdinando Brunetière)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서구 근대 국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발전’의 전형적 모델로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서구의 근대 국가가 걸어 온 길을 따라 근대적 삶을 향한 긴 줄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결정론적이고 단선적인 세계관에서는, 개별 국가의 ‘진화’와 유럽문명의 ‘진화’는 궁극적으로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는 “개별 국가들의 애국심은 유럽전체의 연대 의식과 충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의 진정한 근원이다(the consciousness of national unities not only has nothing incompatible with that of European solidarity, but rather is its genuine foundation)”(163)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서구중심적 ‘세계문화론’으로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학을 말하기란 분명 불가능하다. 서구중심적 시각 자체가 팽창주의적 국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시각 위에서 만들어진 이론과 개념으로는, ‘세계’를 말한다 해도 여전히 ‘국가’,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서구 국가 이상의 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이드(Edward Said)가 지적하듯, 보편성을 지향하는 세계문화의 이상은 “유럽과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그들이 갖는 정치적인 위상 때문이 아니라 그들 국가의 문학이 가장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관념을 반복 재생산할 뿐이다(46-7).

따라서 우리가 ‘세계문화’이라는 개념으로 진정 국민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문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서구중심적 인식체계와 담론을 끊임없이 생산, 재생산해내는 ‘세계’, ‘전체’, ‘보편’ 등의 개념에 동화, 흡수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서구중심적 국가패러다임이 전제하는 역사관과 세계관, 즉, 근대국가의 성립을 통해서만 인류는 역사의 중심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이로써 보편

적인 인간성을 획득하고 지구적 화합이 가능하다는 식의 관점은 이미 우리의 사유방식과 언어, 정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보편적' 가치로 기능하면서 정체성 확립과 윤리적 판단의 준거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날 서구중심적 '보편성'은 자본주의의 지구화와 맞물리면서 더욱더 변형되고 강화된 형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하트와 네그리(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가 “제국(Empire)”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는 자본주의 지구화의 지배논리는 “전체성”(totality) “산발성”(ubiquidity)을 띠며 서구 제국주의보다 훨씬 교묘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또 다른 종류의 ‘보편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xii-xv).

최근 비평가들은 서구를 ‘세계’ 혹은 ‘보편’으로 상징하는 유럽중심적 ‘세계문학’ 개념 밖에서 ‘세계’를 인식하고 상상하며 기록하는 새로운 방식을 활발하게 제안하고 있다. 호미 바바(Homi Bhabha)는 ‘세계문학’의 존재를 국가적 ‘전통’의 연속성, 고유성, 동질성이 깨지는 순간에서 찾는다. 리비스(F.R.Leavis)가 “위대한 전통”이라는 표현을 통해 영문학이라는 국민문학의 정체성을 영국의 작가, 독자, 비평가가 모두 공유하는 확고한 신념과 안정된 가치체계 안에 설립하고 있다면, 바바는 이처럼 안정되게 자리 잡은 문화적 정체성의 질서와 조화, 통일성을 일순간 교란해버리는 글쓰기를 ‘세계문학’이라 정의한다. 그는 국민문학의 정전들이 공유하는 가치체계와 고유성이 갑자기 교란되는 “특이한 변위 (freak displacement)”의 순간에 주목하며, 국민문학의 전통과 서사 속에 예측하지 못하게 일어나는 균열과 단절의 모습을 통해 서구적 ‘보편’에 근거하는 ‘세계문학’ 개념을 그 중심부로부터 깨고 있다. 그는 ‘집’, ‘고향’, ‘모국’ 등 ‘전통’의 공간이 담지하는 지극히 사적이 고도 은밀한 성격이, 외부 세계의 낯설고도 공적인 성격과 기이하게도 겹쳐진다는 깨달음의 충격을 “비본향(unhomely)”적 순간으로 정의하며 이 충격적인 “비본향”의 순간이 불러일으키는 혼란과 당황이 “국제적인 주제”(international theme)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바바에게 세계문학이란 “떠돌이, 식민주의 통치에 지배당하는 원주민, 혹은 정치적 망명자의 초국가적 역사”를 다루는 문학(“transnational histories of migrants,

the colonized, or political refugees”)이다(366-371). 세이한(Azade Seyhan) 역시 국민문학의 정전 밖에 존재하는 문학을 논하면서, 이런 문학들이 “탈 영토화된 문화가 당면한 문제들(issues facing deterritorialized cultures)”을 다루고 “국가 경계 안에 존재하지만 문화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그 국가와 동떨어진 공동체, 혹은 모국과 거주국 모두로부터 소외된 공동체(the communities that exist within national borders or alongside the citizens of the host country but remain culturally or linguistically distanced from them and, in some instances, are estranged from both the home and the host culture)”를 대변한다고 말한다(10). 바바의 세계문학론이 “특이한 변위”가 일어나는 경계지역을 정의하는데 있어 추상화, 일반화의 함정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세이한은 문학작품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시도한다. 그녀는 특히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다루는 작가들의 중요성을 논하면서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실과 변위의 언어적 형태, 이를테면 조상의 언어에 대한 파편화 혹은 생략적 기억, 타언어적 숙어, 혼성된 코드(linguistic forms of loss or dislocation, such as fragments or elliptical recollections of ancestral languages, cross-lingual idioms, and mixed codes)”는 “바이링구얼리즘, 언어의 변화, 그리고 번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new epistemologies of bilingualism, language change, and translation)”을 만들어 내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영토와 관련없는 종류의 연대(new definitions of community and to forge new, non-territorial alliances)”를 창조해낸다고 주장한다(16-30).

바바와 세이한이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각각 국민문학의 내부로부터의 균열과 국민문학의 정전 밖에 놓여있는 주변부의 문학경험에서 논의하면서 ‘주변부’의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면, 모레띠, 담로쉬, 쿠판(Vilashini Cooppan) 등은 주변부/중심부라는 구도를 계속 생산해내는 거대 체제, 그리고 주변/중심의 관계성에 주목한다. 모레띠(Franco Moretti)는 세계문학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시적인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세계문학이란 기본적으로 세계체제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세계

체제에 존재하는 불평등, 즉 서구와 비서구,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권력관계가 문학작품 속에서 반영되는 패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큰 패턴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개별 작품에 대한 꼼꼼한 읽기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작품과 작품이 상호간에 맺는 권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4). 담로쉬는 문학작품이 태생지를 벗어나서 “지구적 순환(global circuit)”을 통해 세계문학을 이해해야 하며 개별작품에 대한 미시적 읽기와 지구적 순환의 거시적 패턴 읽기는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둘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독자가 작품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참여 (distant engagement)”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쿠판은 담로쉬의 논의를 이어받아 프로이트의 “기이함(The Uncanny)” 개념을 빌어 개별 문학작품들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하고도 낯선 관계성을 밝힌다. 쿠판은 모든 텍스트들을 동질화시켜버리는 서구적 ‘보편’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텍스트가 시간, 공간, 문화를 가로질러 서로에 대해 긴밀하게 맺고 있는 ‘관계성’이라는 개념으로 세계문학을 정의한다.

이들 비평가들이 각각 ‘세계문학’을 논의함에 있어 나름대로 강조하는 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언어와 정체성이 소실되고 변위되는 모습, 문학작품들이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서로서로 친밀하고도 낯선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 등이다. 이러한 ‘소실’, ‘변위’, ‘순환’, ‘관계성’ 등의 개념들이 밝혀주는 바, ‘세계문학’은 몇 개의 정전들로 이미 고정되어 버린 ‘불변의’ 전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변화하며, 이동하는 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이고, 또한 서구중심주의에 기반한 언어와 사유방식을 교란하고 흔들며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경직된 구조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문화론이 지향하는 이런 유동성과 부정성은 단순히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을 뿐 아니라 국민국가, 혹은 지구화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서사구조, 의미체계마저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새롭게 논의되는 ‘세계문학’은 기존의 유럽 위주의 리딩 리스트를 비유럽권으로 확장하는 종류의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의 정전에 주변부, 즉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지

에서 생산된 작품 몇 개를 더하는 것은 일견 서구중심주의의 와해처럼 보이지만 주변부 작품들을 읽는 방식은 여전히 서구를 중심으로 한 동화(assimilation), 구원(rescue), 발전(development)의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확장된 정전은 궁극적으로 더욱 확장되고 포용적인 형태의 ‘서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서구적 국가주의 서사를 재생산할 뿐이다. 이런 식의 ‘세계문학’은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문학 공동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별 국민국가의 이념, 형태, 욕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국가 패러다임을 더 큰 정치적, 지리적 단위로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계문학은 무엇을 읽느냐의 문제이기보다는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이다. 담로쉬는 세계문학이란 “무한하고 엄청난 양의 문학작품이 아니라 작품의 순환과 읽기의 방식을 의미한다(world literature is not an infinite, ungraspable canon of worksbut rather a mode of circulation and of reading)”고 말하며(5) 왈코비츠(Rebecca Walkowitz)도 “코스모폴리턴 스타일(Cosmopolitan style)”이란 개념을 초국가적 문학에 중요한 개념으로 내세우며 여기서 ‘스타일’이란 문학적 스타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존재하는 방식, 태도, 자세 등을 지칭하고 있다고 한다(3). 부르스 라빈스(Bruce Robbins) 역시 비슷한 논지를 펼친다. 그는 세계문학이란 궁극적으로 “낯설고 익숙한 문학장르 모두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개념과 판단기준을 생산하며, 지적연구라는 비평개념의 변화를 통해 비평의 세계문학이나 포스트콜로니얼 서사를 연구하지 않는 다른 모든 비평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전체에 대한 새로운 틀 짜기(a new framing of the whole which revalues both unfamiliar and longaccepted genres, produces new concepts and criteria of judgment, and affects even those critics who never ‘do’ world literature or colonial discourse at all-affects all critics, that is, by shifting criticism’s whole sense of intellectual enterprise)”를 의미한다고 말한다(170). 서구중심주의에 도전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동적인 ‘세계문학’을 구상하는 작업은 곧 국민문학과 세계문학,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시각과 사유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탐구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레띠의 표현대로 “세계문학은

대상이 아니라 '문제'라 할 수 있다" (모레띠 강조: 54).

3. 번역이론과 세계문학

번역은 문학 담론 연구사에 있어서 하위적이고 종속적인 도구적 위상에 머물러왔다. 주어진 원전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번역 작업의 의미와 위상은 창조적인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분석하는 작업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번역이론은 문화연구 안에서 번역이 갖는 상징적 의미, 즉 언어와 문화 간 교류양상의 강력한 메타포로서, 담론과 권력 관계를 밝혀주는 지표로서, 또 실제로 문화와 문화 간의 접촉과 만남을 수행하는 담론 행위로서의 그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번역이론은 문화연구와 더불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이고, 비교문학, 역사, 철학, 사회과학, 여성학 등 다른 학문분야들과 함께 논의되면서 학문 간의 통합과 융합을 수행하고 연구지평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번역이론은 특히 세계문학과 함께 논의되었을 때 흥미롭고도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낸다.

번역은 우선 세계문학의 출발지점에서부터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피테가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을 구상하게 된 동기가 자신의 작품이 프랑스에서 번역, 번안되어 공연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문학'과 번역이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다(Pizer 10 참조). 피테는 또한 번역의 활성화를 '세계문학'의 전제조건으로 보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원작과 번역 간의 이러한 관계이며, 세계문학을 [...] 장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I]t is just these connections between original and translation that express most clearly the relationship of nation to nation and that one must above all understand if one wishes to encourage a [...] world literature" 21)며 세계문학의 시대를 여는데 번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

조한다. 대학에서 ‘세계문학’ 강좌를 들을 때도 주로 번역본을 통해서 자국의 언어/문화 밖에 존재하는 문학텍스트를 접하므로 사실상 번역은 ‘세계문학’으로 이어지는 창구라 할 수 있다. 피저(John Pizer)는 세계문학을 일종의 ‘문화적 매개’(cultural mediation)’로 대학에서 세계문학 강의의 교수자는 ‘문화적 중개자(cultural mediator)’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한다(12).

이러한 번역과 세계문학의 밀접한 관계 위에서, 번역이론은 세계문학이 전제하는 새로운 사유, 언어, 정체성이 어떤 성격을 가지며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는가를 밝혀준다. 세계문학의 주요 개념들인 언어적 ‘소실’과 ‘변위’의 메카니즘,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와 맺는 관계성 등은 텍스트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동하는 과정을 상세히 탐구하는 번역이론의 주요 관심사이다. 번역이론은 또한, 번역이 담로쉬가 말하는 “지구적 순환”이기도 하고 모레티가 주목하는 세계체제 안에서의 권력지형과 불평등의 패턴을 드러내는 언어적 지표이기도 함을 밝히고 있다.

번역이론이 ‘세계문학’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번역의 속성, 즉 번역의 언어, 행위, 사유 공간에 내재된 본질적으로 이중적인 성격 때문이다. 번역은 텍스트의 끊임없는 이동과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이동이 완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실패의 예감 - 원전에 대한 균열과 배신, 원어의 뉘앙스, 느낌, 의미의 소-을 또한 내재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중적 속성이 서구중심적 ‘세계’, ‘보편’에 기대거나 동화되지 않으면서 ‘보편’, ‘전체’, ‘세계’ 등의 개념을 새롭게 짚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언어, 정체성, 문학을 새롭게 바라보고 사유하는 방식을 제안해준다.

4. 번역의 이중성과 세계문학

4.1 번역공간의 유동성과 세계문학의 역동성

번역의 공간은 끊임없는 움직임과 유동성의 공간이다. 여기에서의 ‘유동성’이란 텍스트가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동하는 단선적 움직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시공간, 문화, 가치 등을 가로지르는 과정에서 텍스트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맥락과 관계성을 획득하며 또한 끊임없는 구성, 해체, 재구성의 움직임을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텍스트는 고유하고 본질적이라기보다는 잠정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번역의 이런 동적인 속성은 세계문학이 번역의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잠정적, 유동적, 관계적인 성격을 띠게 됨을 밝혀준다.

첫째, 번역으로 인해 ‘세계문학’이 갖게 되는 역동성은 우선 원전과 자국어 안에 내재한 있는 수많은 유동성을 극대화시킨다. 바바라 존슨(Barbara Johnson)은 번역자의 번역과정을 기술하면서, 번역자는 외국어를 통해 자신이 모국어와 긴밀히 맺고 있는 애증관계를 새롭게 확인하게 된다고 한다 (“Taking Fidelity Philosophically” 143). 하나의 단어는 그 단어를 구사한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많은 의미와 함의들을 파생해내며 이 파생의 광범위한 울림과 반향은, 외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극대화되어 인식된다. 번역자는 현실적으로 이 많은 의미들을 나름의 판단에 따라 “편집해내”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어에서 나는 “잡음들(noise),” 꼬리에 꼬리를 물며 끊임없이 파생되는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의미들의 존재는 더욱 뚜렷해지고, 궁극적으로 언어의 “순수한 언어성(pure linguisticness)”에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다(Mother Tongues 6).²⁾ 존슨의 논리에 따르면, 언어 그 자체에 이미 수

2) 존슨은 폴 드만(Paul de Man)을 인용하면서 드만이 ‘bread’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brot’과 프랑스어 ‘pain’을 번역하면서 그 단어들 이 영어와 섞이면서 연상, 파생되는 단어들, ‘bastard’, ‘pain’ 등을 떠올리며 겪었던 심정적 불편함을 예로 든다(Johnson 58-9).

많은 ‘다른’ 의미들이 내재해 있고, 이들이 서로 접촉하고 갈등하며 관계 맺는 양상은 우리가 예측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즉, 언어란 하나의 고정적인 의미체계 안에 암전히 간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어느 정도 자유롭게 구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언어에 대한 완전한 소유나 지배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번역과정에서 인식하게 되는 언어의 이런 “순수한 언어성”은 우리가 이미 속속들이 이해하고 완벽히 구사한다고 생각해왔던 ‘모국어’가 사실은 다층적이고 불안정한 의미체계를 가지고 있는 낯선 언어임을 일깨워주고, 자국의 언어와 문학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확신, 본질적인 권한, 장악력을 잃게 한다.

번역과정에서 일어나는, ‘내 것’이라고 간주했던 언어, 문학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닫는 이런 순간은, 바바와 쿠판이 ‘세계문학’에 대해 “특이한 변위”, “비분향”, “기이함” 등의 개념으로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번역은, 언어와 문학의 ‘기원’, ‘고향’, ‘본질적 정체성’ 등의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고 교란하는 인식 공간을 열어주면서 “세계문학”을 구상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인 것이다. 이는 또한 국민국가 안에 존재하는 경험들이 단일하거나 보편적이기보다는 다양하고 혼종적임을 말해준다. ‘세계문학’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모순, 갈등, 모호함 등을 피하지 않고 “다생적인 서사 안에 차이의 다의적 파생(heteroglossic proliferations of difference within polygeneric narratives)” (Shohat 208)을 담아내야 한다.

둘째, 번역은 텍스트가 서로 다른 언어, 문화, 상황으로 옮겨가는 이동 과정 속에서 작품 속에 타자와의 친밀하면서 낯선 관계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결과 작품 내부의 안정되고 고유한 질서는 교란되며 텍스트는 외부를 향해 열린 관계성을 갖게 된다. 언어뿐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넘나드는 번역의 역동성은 독자와 텍스트 간의 간극을 유발한다. 그러나 원전이 원래 의도하고 겨냥했던 독자와는 다른 독자, 즉 다른 시대와 공간 속에 위치한 이런 독자의 존재는 ‘세계문학’의 관계성과 순환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마이클 앨런(Michael Allan)은 이처럼 원전과는 다른 맥락 속에 놓인 독자는 원전을 ‘다르게’ 읽어낼 수밖에 없으며 독자와 텍스트 간의

이런 약간 어긋난 관계, “비스듬한 읽기(oblique reading)”가 ‘세계문학’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그는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이 알제리 국민을 대상으로 쓴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Les Damnés de la terre*)”의 서문이 프랑스 철학자 사르뜨르에 의해 쓰여진 것을 지적하면서, 자국민을 겨냥한 파농의 글과 유럽독자를 의식한 사르뜨르의 서문이 어떤 식으로 다른 맥락, 다른 상황의 읽기를 유도하며 이들 간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공통의 참여의식을 이끌어내는가를 논의한다. 앨런에 따르면 이런 “비스듬한 읽기”를 통해서 ‘세계문학’은 자국의 현안에 대해 책임감 있게 임하면서도 동시에 그 현안에 대한 해석과 참여는 외부로 활짝 열린 관계성을 통해 새롭게 조망될 수 있는, 담로쉬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참여(distant engagement)”라는 지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번역의 유동적 공간은 세계문학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데 있어 보편과 특수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지에 대한 의미 있는 제안을 한다. 지구화 시대를 표현하는 케치프레이즈가 되어버린 “글로벌(global)”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보편과 특수, 전체와 부분, 세계와 지역 간의 관계가 더 이상 이분법적으로 구분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편과 특수, 전체와 부분, 세계와 지역은 서로 불가분으로 얽혀있으므로 부분의 시각으로 전체를 바라보고 동시에 전체의 시각으로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전체와 부분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글로벌”한 시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답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둘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줄 구체적인 모델이 없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개별 작품들을 ‘전체’, ‘보편’, ‘세계’ 등의 거대담론에 무력하게 흡수시키지도 않고, 그와 동시에 전혀 ‘전체’라는 틀 없이 각각의 작품을 개별적인 맥락에서만 읽는 것도 아닌, 부분과 전체를 의미있게 연관짓는 “글로벌”한 읽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벤야민(Walter Benjamin)이 번역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변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코(eco)’의 메타포는 개별 작품들이 어떻게 모이지고 세

계문학의 거시적 시각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된다. 벤야민은 다른 언어, 다른 문화에서 생산된 텍스트가 갖는 낯선 타자성의 성격을 “숲”과 “에코”의 메타포를 통해 말한다. 벤야민에 따르면 “언어의 숲(the language of forest)”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에코가 그 자신의 언어로 타언어로 쓰여진 작품의 울림을 줄 수 있는 한 지점(the single spot where the echo is able to give, in its own language, the reverberation of the work in the alien one)”을 찾아 거기 서서 숲 안에 숨어있는 언어를 불러내는 행위이다(76). ‘숲’, ‘에코’, ‘울림’ 등의 메타포는 한편으로는 번역텍스트가 언어적 ‘전체’, 언어적 ‘보편성’에 대해 갖는 타자성, 거리를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거리가 갖는 성격이 ‘에코’의 떨림, 울림처럼 유동적이고 잠정적인 것임을 밝혀 개별 텍스트가 보편적 언어에 대해 갖는 관계가 추상화,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한다. 번역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변위는 에코가 만들어내는 울림, 반향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번역가는 보완적, 구성적 관계로 구성된 언어의 전체, 즉 “언어의 숲”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³⁾ 대립의 축과 판단의 준거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번역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에코’의 메타포는, 개별 작품이 각자 처한 위치에서 그 지점의 문제의식과 고민을 녹여내는 동시에 그것이 다른 위치에 있는 작품들로부터 다양한 반향과 공명을 불러내는 방식으로, 보완적이고 구성적인 전체, 즉 ‘세계문학’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로, 번역의 유동적 공간은 ‘세계문학’이 견지하는 정치, 윤리적 입장을 밝혀준다. 지구화 시대 국경, 인종, 문화 등 물리적인 경계들이 흐릿해짐에 따라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윤리적 준거를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리의 일상과 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정치의식과 윤리적 잣대를 형성해왔던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단위가 도전 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집단에 충성을 다짐해야 할지, 어떤 정체성과 가치를 지향해야 할지 혼란스럽

3) 내이절(Rainer Nägele)은 휠덜린, 보들레르, 벤야민, 카프카, 프로이트 등을 논의하면서 번역에서 ‘에코’의 전략을 꼼꼼히 분석한다. Rainer Nägele's *Echoes of Transl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7) 참조.

기 짝이 없다. 거대매체를 통한 문화의 일방통행, 자본의 팽창과 함께 심화되는 지구적 불평등의 현실 하에서 윤리적, 정치적 지향점에 대한 우리의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근원적인 소속감과 도덕적 정당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구와 손을 잡고 어떤 잣대로 행동해야 하는가? 국민문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문학연구는 과연 어떤 정치, 윤리적 지향을 가져야 하는가?

번역의 유동적인 공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에 적절한 장소이다. 번역의 공간이 항상 불확실한 동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번역과정에는 발생하는 예측하기 힘든 수많은 변수들 때문이기도 하다. 번역작업은 여러 상반되는 원칙과 가치들 사이의 갈등과 타협을 수반하는데, 이를테면 내용에 충실할 것이냐 문체의 유려함을 살릴 것이냐, 원전의 난해함을 살릴 것이냐 번역어 속에서 쉬운 이해를 중시할 것이냐, 번역가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지우고 감출 것인가 등 수많은 대립적인 입장들 간의 충돌, 조정, 타협 등이 해당된다. 이런 과정에서 생각과 판단, 가치들의 유동적인 움직임이 발생한다. 번역행위에 필연적으로 연루된 이러한 유동성은 갈등하는 대립적 가치들의 축 자체가 고착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번역에서의 '유동성'이란 이미 주어진 고정된 기준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 텍스트의 성격, 맥락, 번역자의 여건 등 쉽없이 각각 다른 문맥과 상황의 특수성 속에서 잠정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번역행위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정치적, 윤리적 결정에 노출되고 연루되고,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잠정적인 대처를 하면서 가치의 준거들을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일관되고 안정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확고한 윤리적 준거들이 없다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도덕 체계에 심각한 혼란, 공황, 아노미를 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에 대해 '항상' 윤리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을 의미한다. 행위, 판단, 결정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 탄력적, 잠정적이다. 안정된 준거들이 주어졌을 때는 그에 의해 결정된 윤리적 판단에 일방적으로 기대면 되지만,

준거틀 자체가 불안정적이고 유동적일 때에는 쉽없이 주어진 맥락과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끊임없이 잠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판단과 책임의 유일한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정치적, 윤리적 결정에 노출되고 연루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번역은, ‘국가’라는 공통분모, 소속감, 준거틀에 얽매이지 않는 잠정적, 유동적 성격의 문학이 보다 윤리적이고 정치적으로 책임있는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밝혀준다.

4.2 실패의 역설과 세계문학의 가능성

번역의 인식 공간은 ‘실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번역이란 처음부터 실패할 것이 전제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매끄럽고 훌륭한 번역도 원전을 있는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원전의 메시지와 구조는 균열되고 부서지며, 원어의 미세한 느낌, 정서, 문화적 맥락은 소실되고 많다. 번역본은 원전의 내용과 형태, 의도를 충실히 옮기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원전에 대한 ‘배신’이라 할 수 있다. ‘세계문학’ 역시 실패의 예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늘날 ‘세계문학’에 대한 이론적 논쟁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천적 측면에서 ‘세계문학’은 사실상 실패가 예정된 프로젝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세계 전체를 아우르면서 문학작품을 연구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는 그 자체로도 엄두가 나지 않는 방대한 스케일의 일인데다, 구체적으로 연구할 작품의 범위, 언어와 번역의 문제, 지역적 관심과 지구적 관심의 적절한 융합 등의 난제들은 ‘세계문학’이 현실적으로 수행 불가능한 연구라는 회의적 결론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일반적인 의미체계 안에서는 부정적인 함의를 갖는 실패, 균열, 배신 등 부정적 속성들이 번역의 공간 속에서 역설적으로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한껏 열어준다.

실패와 균열, 배신의 공간에서 ‘세계’를 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넌센스 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원활한 소통과 화합으로 매끄럽게 하나가 되는 ‘세계’가 아니라, 균열된 세계, 소통이 안 되어 오해가 난무하는 세계, 배

신으로 인해 불안한 세계의 모습은 '세계문학'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틀로 적절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분열과 단절이 서구중심적 '보편'이 내세우는 안정된 질서, 소통, 화합의 이면에 존재하는 세계의 현실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묘사임은 부인할 수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지구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북부(Global North)'/ '글로벌 남부(Global South)' 같은 용어들이 드러내듯 지구화가 이루어낸 기술과 부, 편익의 일부의 인류만이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이다. '실패'와 '균열', '배신'은 단지 서구적 '보편' 내부에 존재하는 균열과 실패를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서구중심적 '보편'과 '세계'의 서사가 완전한 실패했음을 인정함으로써만 비로소 새로운 '보편', 새로운 '세계'를 구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림을 강력히 암시한다.

이런 가능성은 첫째로, 번역공간에서 일어나는 원전과 번역본 사이의 균열과 단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세계문학"에 단절과 불연속적 역사관을 부여하여 역설적으로 서구중심적 근대성이 갖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역사적 전망을 열어준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괴테, 아놀드, 막스 등 서구학자들은 '세계문학'의 비전을 통해 유럽적 가치의 구현을 인류 전체의 발전과 동일한 것으로 전제했으며, 서구 근대 국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발전'의 보편적, 전형적 모델로 제시하였다. 사이드(Said) 등 많은 비평가들이 이미 지적해왔듯, 이러한 전제는 근대를 이미 성취한 앞서가는 서구국가와 근대를 향한 긴 줄에서 뒤쳐져 있는 비서구 국가 간들의 단선적 전후관계 위에 인종, 국가, 문화 간 위계를 함의하고 있다.

벤야민이 수행하는 번역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은 서구의 단선적, 인과론적, 결정론적 발전론을 비판하고 '근대'와 '전근대' 등 역사적 개념을 불연속적, 단절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열어준다. 벤야민은 번역본과 원전 사이에 존재하는 전후 관계, 위계관계를 문제시하면서 원전이 번역본에 대해 가지는 질서와 권위를 해체한다. 그는 "삶(life)," "후삶(afterlife)"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원전과 번역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을 새롭게 정의한다. 그의 비유적 언어에 의하면, "번역은 원전에서 나오는 것이

지만 원전의 삶보다는 원전의 후삶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Translation issues from the original—not so much from its life as from its afterlife)”(71). 즉, 번역은 단순히 원전의 의미를 전달하는 하위적이고 종속적인 지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번역은 원전의 옷깃을 펼쳐주고 감겨진 주름을 펴주면서 그런 해석적 행위로 원전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며, “후삶”으로서 존재를 이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것은 원전이 아니라 번역인 셈이다. 벤야민이 보여주는 번역과 원전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인 위계질서나 연속적 인과관계가 아니며,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이지만 또한 불연속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을 띤다. 이런 번역의 메카니즘은 ‘근대’와 ‘전근대,’ ‘근대적 문학’과 ‘전근대적 문학’은 연속적이고 단선적인 관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근대적 성취를 이룬 문화 속에도 전근대적인 요소가 혼재해 있고, 전근대적인 형태의 문화에도 근대적인 요소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번역의 공간은 지구 위의 모든 문학적 활동이 나아갈 길과 미래의 지향을 유럽적 가치의 실현으로 결정짓는 서구중심적 세계문화론의 역사관을 교란하면서, ‘발전’과 ‘정체’의 개념을 연속선상에 놓인 선후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동시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

두 번째로, 번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은 단절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역설을 통해 ‘세계문학’이 타자와의 만남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서구중심적 보편성이 가진 제국주의적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세계문학’은 국가, 문화, 언어의 경계를 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타자와의 만남을 전제한다. 이러한 만남에서 ‘경계’가 부여하는 언어적, 문화적, 인식적 장애로 인해 자아와 타자가 소통과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근대역사에 있어 서구 제국주의는 이런 장애가 되는 경계들을 힘으로 지우고 쉬운 소통, 쉬운 이해를 도모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복의 형태로, 타자에 자아의 인식들을 덧씌운 포섭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데리다가 적시하듯, 언어는 선행적으로 존재하는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해내는 투명한 매개가 아니며 언어와 언어, 문학과 문학 간의 만남에서 정치적, 문화적 권력 투쟁과 갈등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각 다른 문화권에 속

하는 작품들이 중립적이고 평등한 만남을 통해 인류 보편의 문학을 탄생시킨다는 것은 허구적 개념일 뿐이며, 이런 의미에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세계문화이란 사실상 식민주의적 정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번역은 정치적 지형과 권력 투쟁의 양상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언어행위로 서구적 '보편'의 허구와 폭력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언어적 지표로 기능한다. 니란자나(Tejaswin Niranjana), 스투록(John Sturrock), 바스넷(Susan Bassnet) 등 많은 번역이론가들은 투명한 번역, 중립적인 교류, 보편적인 언어를 내세운 서구의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태도를 비판한다. 류(Lydia Liu) 역시 번역은 정치적 이해와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배제된 중립적인 공간이 결코 아님을 밝히면서 번역행위를 문화적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이론화한다(26). 이들은 번역을 통해 식민지의 원전이 제국의 언어로 쉽고 매끄럽게 소통, 이해되도록 포섭하는 과정을 문제시하고 있으며 보편이라는 이름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양상의 삶, 즉 낯설고 난해한 의미와 수사를 제국의 의미체계로 동질화시키고자하는 근대적 욕망의 정치적 아젠다를 적시한다.

따라서 최근 번역이론은 소통과 이해라는 번역의 기본 임무를 역설적으로 타자성의 불가해함과 단절성을 강조함으로써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아와 타자는 존재의 차원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연루되어 있으나, 인식과 이해의 차원에서는 완전히 단절/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보편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주의적 정복을 피하지 않으며 어느 한 쪽에 포섭·종속되지 않는 문화 간의 교류 위에 세워지는 '세계문학'을 구상하는데 기여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베누티(Lawrence Venuti)는 타자를 만나고 해석하여 다시 쓰는 번역작업에서, 번역자의 의미체계와 타자 사이에 존재하는 단절, 분리, 거리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번역의 윤리적 임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자국의 가치에 짜맞추는 동질화의 논리(ethics of sameness that hews to dominant domestic values)"가 아니라 "낯선 텍스트의 타자성(the foreignness of the foreign text)"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만이 타자와 동등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188). 스피박은 텍스트를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해 번역자가 텍스트의 정치적 아젠다를 공유해야 하

는가라는 이슈를 논의하면서, 번역의 대상인 타자와 번역자인 자이는 결코 같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서로 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번역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이해와 소통의 불가능함을 인정함으로써, 때로는 타문화의 텍스트에 대한 “의도적인 오독((mis)reading)”을 함으로써, 정복의 논리가 아니라 타자에 대한 “사랑”에 기반한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The Politics of Translation” 179). 이처럼 번역이론들이 매끄럽고 쉬운 소통을 포기하고 반대로 소통의 불가능함, 심지어는 오독과 불해함 등에 초점을 두는 번역방식을 부각시키는 것은 바로 서구중심적 ‘보편성’이 함의하는 식민주의적 정복욕구와 폭력성에 대한 대응방식인 것이며, 이는 새로운 ‘세계문학’이 언어와 문화간의 소통방식을 구상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 된다.

세 번째로, 번역은 ‘세계문학’의 내부에 ‘균열’이라는 개념을 새겨 넣어 역설적으로 서구중심주의적 ‘보편성’에 기대지 않고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세계문학’의 탄생이 임박했음을 강력히 암시한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번역자들은 원전의 의미나 수사의 효과를 그대로 옮기지 못하는 번역으로 원전이 가지고 있던 통일성, 균형, 질서에 ‘균열’을 만든다. 그러나 번역에서 ‘실패,’ ‘배신,’ ‘균열’ 등의 부정적인 개념은 그 부정적 의미에 의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벤야민, 폴 드만, 바바라 존슨 등은 번역에서 ‘실패,’ ‘배신,’ ‘균열’이 성공, 충실, 전체 등의 반대적 개념을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성공,’ 새로운 ‘충실,’ 새로운 ‘전체’에 대한 조망을 가지게 되는 양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한다. 벤야민은 원전과 번역과의 관계를 “깨진 단지(broken vessel)”에 비유하면서 번역이 원전에 대해 야기하는 파괴와 붕괴에 대해 설명한다. 파편들은 다시 조합되지만 이는 원전과 “똑같은(identical)” 모습이 아니라 원전과 “이어지는(contiguous)” 형태로 이루어진다(qtd. in Derrida, 189-90). 원래의 구조물로 결코 복원될 수 없다는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단지의 깨진 파편들이 이루어낸 새로운 조합은 원전의 “후삶(afterlife)”으로써, 역설적으로 이미 깨어진 구조물에 생명을 부여하면서 새로운 형식으로 존재를 이어가는 방식이 된다. 드만은 벤야민

의 논의 중에서 파괴와 실패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면서 번역과정에서 일어나는 실패와 균열을 본질적인 차원으로 끌어들이며 벤야민에게서는 지켜졌던 원전의 아우라마저 해체시킨다. 그는 “[번역자]는 깨뜨린다, 그들은 원전을 붕괴시킨다, 그들은 원전이 이미 언제나 깨어져있음을 드러낸다”면서 “원전 안에 이미 심어져 있는 본질적인 실패, 본질적인 깨어짐(an essential failure, an essential disarticulation which was already there in the original)”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번역은 “원전이 이미 죽었음을 발견함으로써 원전을 죽인다(They kill the original, by discovering that the original was already dead. 84)”고 주장한다. 드만은 이런 주장을 통해 원전이 갖는 권위와 권력, 더 나아가 기존의 의미체계가 갖는 권위적 위상을 총체적으로 부정한다. 의미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동하고, 변화하는 언어와 인식의 공간에 이 활동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기존의 틀 자체를 부정하여, 새로운 의미들, 새로운 파편들이 나타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역시 번역이 원전을 훼손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 훼손이 갖는 역설적 의미를 말한다. 번역은 인식의 차원에서 이분법적 대립축을 세우지 않고 ‘배신’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바버라 존슨의 논의를 이어받아서 버틀러는 번역이 원전을 ‘배신’하고 ‘훼손’하지만 번역 공간에서의 특별한 종류의 배신과 훼손은 역설적으로 원전을 살아남게 한다고 말한다(84).

우리의 언어와 사유방식이 서구적 지배담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패’, ‘배신’, ‘균열’은 지배담론을 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더욱이 오늘날 서구적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자본의 전지구적 팽창과 때때로 밀월관계를 맺으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산적이고 정교하며 총체적인 형태의 지배체제를 생산해 내고 있다. 새로운 ‘세계’를 개념화하는 작업 역시 우리의 의식, 언어, 욕망, 생활 전반에 뿌리 깊이 스며들어 작동하는 서구적 ‘보편성’이라는 지배담론과 의미체계 안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구조와 체제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배신을 선포하고 그것의 균열과 실패를 말

하는 것은, 지배담론 안에서 ‘세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시각을 만들기 위한 보다 저항적이고 윤리적인 인식의 지평과 열린 가능성을 향한 희망적인 제스처라 할 수 있다.

5. 결론

‘세계문학’은 번역이론과 함께 논의했을 때 서구중심적 ‘보편성’에 기대지 않고서도 세계와 문학을 말할 수 있는 흥미로운 논의들을 생산해낸다. ‘세계문학’이 지구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불평등과 차별의 양상을 짚어낼 수 있는 관계적, 포괄적 시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며 변모하는 진 과정을 주도하는 번역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번역은 ‘세계문학’이라는 거대한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동적인 관계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이 정체성이 서구적 지배담론을 부정하고 새로운 존재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

이처럼 번역을 통해 정립된 ‘세계문학’은 유동성과 부정성을 중심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지향점 없는 해체주의나 국가, 민족 등 현실로 존재하는 실체가 손쉽게 부정될 수 있다는 순진한 믿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문학’은 우리의 현실과 사유 속에 뿌리 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 ‘민족’ 등의 현존하는 체제와 담론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이나 대안 없는 해체가 아니다. 해체의 대상은 그 체제를 본질화, 성역화, 비역사화시키는 사유방식이며, ‘세계문학’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와 ‘문학’을 인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어와 인식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현실체제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립의 장을 열고자 하는 것이다. 번역의 언어, 행위, 사유 공간에 내재된 본질적으로 이중적인 성격, 즉 텍스트의 이동을 담당하면서도 그 이동이 실패할 것임을 전제하는 이중적인 속성 위에서 ‘세계문학’은 지구적 불평등과 차별을 유지, 재생산하는 서구중심주의라는 지

배담론, 사유방식, 패러다임을 교란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서구적 '보편성'에 대한 강한 부정이야말로 모호하고 감상적인 코스모폴리터니즘이나 공허하고 추상적인 구호와는 달리, 정치적, 문화적으로 책임 있게 '세계'를 이해하고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참고문헌

- Allen, Michael(2007), "Reading with One Eye, Speaking with One Tongue: On the Problem of Address in World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Studies* 44.1-2, 1-19.
- Arnold, Matthew(1956), *Essays in Criticism*. Ed. S. R. Littlewood. London: Macmillan.
- Bassnett, Susan and Andre Lefevere(1998), *Constructing Cultures: Essays on Literary Translation*. Clevedon, Philadelphia, Toronto, Sydney, Johannesburg. Multilingual Matters.
- Benjamin, Walter(1969), "The Task of Translator." *Illuminations*. Trans. Harry Zohn. Frankfurt: Schocken Books, 69-82.
- Bhabha, Homi K.(2003), "The World and the Home." *Close Reading: The Reader*, Ed. By Frank Lentricchia and Andrew DuBois. Durham and London: Duke UP.
- Brunetière, Ferdinando(1973), "European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The Early Years*. Ed. Hans Joachim Schulz and Phillip H.Rhein.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153-82.
- Butler, Judith(2004), "Betrayal's Felicity." *diacritics* 34.1, 82-87.
- Cooppan, Vilashini(2004), "Ghosts in the Disciplinary Machine: The Uncanny Life of World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Studies* 41.1, 10-36.
- Damrosch, David(2003), *What Is World Liter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errida, Jacques(1985), "Des Tours de Babel." *Difference in Translation*. Ed. Joseph F. Graha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Fluck, Winfried(2000), "The Search for Distance: Negation and Negativity in Wolfgang Iser's Literary Theory." *New Literary History* 31.1, 175-210
- Goethe, Johann W. von(1973), "Some Passages Pertaining to the Concept of World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The Early Years*. Ed. Hans Joachim Schulz and Phillip H. Rhein.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1-11.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2000), *Empi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ohnson, Barbara(2003), *Mother Tongues: Sexuality, Trials, Motherhood, Translation*.

Cambridge, MA: Harvard UP.

Lawall, Sarah(1994), "Introduction." *Reading World Literature: Theory, History, Practice*. Ed. Sarah Lawall. Austin: U of Texas P.

Li, David Leiwei(2003), "The State and Subject of Asian American Criticism: Psychoanalysis, Transnational Discourse, and Democratic Ideals." *American Literary History* 15. 3, 603-624.

Liu, Lydia H.(1995),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 China, 1900-1937*.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Man, Paul de(1986), "Walter Benjamin's 'The Task of the Translator.'" *The Resistance to Theory*. Ed. Joseph Graham. Minneapolis: Minnesota UP, 142-8.

McInturff, Kate(2003), "The Uses and Abuses of World Literature." *The Journal of American Culture* 26. 2, June 224-236.

Moretti, Franco(2000), "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 *New Left Review* 1, January-February, 54-68

Moulton, Richard(1911), *World Literature and Its Place in General Culture*. New York: Macmillan.

Nägele, Rainer(1997). *Echoes of Transl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P.

Nelson, Cary(2003), "Consolations for Capitalists: Propositions in Flight from World Bank Literature" *World Bank Literature* ed. and intro by Amitava Kumar. Minneapolis, MN: U of Minnesota P.

Niranjana, Tejaswini(1992). *Siting Translation: History, Post-Structuralism, and the Colonial Context*. Berkeley, Los Angeles, Oxf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aid, Edward(1978).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Shohat, Ella(1997), "Post-Third-Worldist Culture: Gender, Nation, and the Cinema." *Feminist Genealogies, Colonial Legacies, Democratic Futures*. Ed. By M. Jacqui Alexander and Chandra Talpade Mohant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83-209.

Spivak, Gayatri C.(1992), "The Politics of Translation." *Destabilizing Theory: Contemporary Feminist Debates*. Eds. Michele Barrett and Anne Philips. Cambridge: Polity Press,

176-200.

_____ (2003), *Death of a Discipline*. New York: Columbia UP.

Sturrock, John(1990), "Writing Between the Lines: The Language of Translation." *New Literary History* 21, 993-1013.

Venuti, Lawrence(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New York: Routledge.

원고 접수일: 2008년 월 일

게재 결정일: 2008년 월 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ceive 'world literature' using translation theory to understand the world and literature in a broader contex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ranslation is key concept to figure out the nature and the form of 'world literature' that we need to re-imagine our world outside of the dominant narrative of 'universality' which the West has produced and spread all over the world. Translation opens up a possibility where another type of 'world,' another type of 'modernity,' and another type of 'other' – in other words, a perspective which could be critical and independent of Eurocentrism – can be articulated, with its constant mobility, disconnectivity, and negativity. The unique mechanism of translation in both linguistic and epistemological terms makes the easy assimilation of the idea of 'world' into the Eurocentric universality quite hard. Translation inscribes mobility and relationality on the idea of 'world literature,' making it tentative, insecure, incommensurable. It presents the world as hopelessly fragmented, disconnected, and doomed to fail, not only to reveal the failure of the entire system of signification of Eurocentric nationalism and universalism, but also to anticipate a birth of new terrain of 'world literature.'